

목어

'붉은 악마'



중국신화에서 대표적 악마는 치우(蚩尤)다. 중국의 시조로 신화시대 최고 권력자였던 황제(黃帝)에 대한, 그의 간담을 몇 번이나 서늘케 한 장본인이니 중국에서야 악마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치우가 누군가. 동이족과 연원이 닿아있는 염제(炎帝) 신농씨의 후예로 한민족 신화에서는 단군 이전 환웅시대 14대째 임금인 자오지 천황이 바로 치우다. 구리머리에 쇠 이마를 썼으며 슬기롭고 지혜로워 능히 아홉 겨레를 거느렸고, 모래와 돌, 쇠붙이를 먹고 안개와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했으며 우수한 병기 만드는데도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황제와 10년에 걸쳐 전쟁을 치르면서 치우는 광대한 중국 땅을 차츰 정복, 한때 동이족의 국토를 크게 넓혀 민족의 군신(軍神)이 되었다.

그럼에도 민족 신화에 무지했던 한국의 한 TV에서 중국 신화를 그대로 작품화해 치우가 악마로 나오는 민화영화화 방향,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그 치우가 이제 세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공식 응원하는 '붉은 악마'의 상징 캐릭터로 등장,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세계는 지금 '붉은 악마'를 '올리건'이라 부르며 영국의 '올리건'이나 러시아의 '발리건' 등 세계의 광적 축구 팬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응원단으로 소개하고 있다. 응원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월드컵의 우승국이라는 찬사까지 아끼지 않는다.

수많은 거리의 응원 인파들에게 짐서식의 모범을 보이고,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을 볼때우는 '붉은 악마'는 진정 우리사회에 하나의 희망을 던져주면서 미래 시민사회의 건전한 가능성까지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이 택한 상징, 신화속의 군신인 치우의 재생 역시 반기고 싶다. 한 나라의 신화는 그 민족의 원형질이라 하지 않는가. 한민족의 원형질이 이 시대에 재생, 건전한 모습을 세계에 드러내고 있음인데 앞으로 남은 경기기간에도 '붉은 악마'들의 건투를 기원한다.

김진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불자의 생각

수행

불자들은 하루에 참선이나 기도, 염불, 경전 읽기 등 수행을 위해서 평균 30분미만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30분 미만" 51.2%

82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42명(51.2%)이 30분 미만, 18명(22%)이 1시간 미만, 9명(11%)이 2시간 미만, 13명(15.8%)이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개인적인 수행을 하는 시간은 주로 언제냐는 질문에는 46명(56.1%)이 형편대로, 26명(31.7%)이 새벽, 10명(12.2%)이 저녁이라고 답변했다.

일민태 기자

탈북자 문제가 이제는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탈북자가 외국 의 외교공관에 진입한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교섭을 통해 제3국 추방을 거쳐 서울로 가는 방법을 택해왔다. 그런

복합을 떠나 중국, 러시아 등지에 있는 탈북자는 그 수가 얼마나 될까, 또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탈북자 수를 2천~3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때, 우리나라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탈북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의사를 표시한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세 범주 중 가장 협의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도 통일정책, 대북정책의 '상황적 논리'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탈북자

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정부의 탈북자 대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하다. 북한이 엄중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미온적 생각을 하고 있다.

둘째,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응 프로그램이 일괄적이고 형식적이

서의 직업인, 생활인으로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시민양성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탈북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탈북자가 가지고 온 정보의 가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잘 먹고 잘살던 사람'이 정보수준의 재능에 따라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도 잘 먹고 잘살다'고 불평한다. 또 탈북자들은 정부로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탈북자의 80%정도가 영세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북자문제는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합리적이고 상호 이해적 차원의 해법을 찾는 문제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복지문제를 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교수
행정대학원장

탈북자 입국·복지 함께 고민할 때

데 최근 중국정부가 중국 내 한국공관에 들어온 탈북자의 신병을 요구하는가 하면, 탈북자를 연행해가고, 우리나라 외교관을 폭행한 사건까지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인권단체, 종교단체들은 4만명에서 20만명 정도라고 말한다.

그러면 탈북자들을 우리는 어떤 범주에서 해석해야 하는가. 첫째,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으므로 그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주장. 둘째,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반적 범위의 북한 이탈주민을 말하는 경우 셋

문제를 접근하는 데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 놓아야 한다. 나아가 유엔고등판무관실(IJNHC)과 협력하여 난민지위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은 '사회연체제계의 빈약으로 인한 외로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말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생존기술'에 능숙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자신을 '문제'로 보는 남한사람들의 시선에 괴로워하며,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부족에서 생기는 심

다. 예를 들면, 탈북자는 우선 정보사령부 합동심문소에서 6개월, 보호시설(하나원)에서 6개월, 거주지의 경찰에 의한 보호 2년 포함 3년을 보호하는데 담당경찰의 수시 점검으로 인해 인권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셋째, 취업프로그램도 본인의 취미나 특기를 고려하지 않고 공장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식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남한에

'한국의 불교학은 수행 및 신행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학 전공 교수들이 만나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에 표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연다. 조계종 포교원이 27~28일 부산 내소사에서 '불교학의 실사구시'를 주제로 개최하는 '불교학전공 교수연수회'가 그것.

열린마당

불교학과 신행

이날 발표되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불교학의 실사구시-체계불교학 및 실천불교학의 정립을 위한 소망'이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회에 나서는 박태원 울산대 교수와 서재영 동국대 교수의 '불교학과 신행, 수행의 문제'를 미리 들어본다.

<편집자>

체계·실천불교학 정립을



김성철 교수

동국대 불교학

오늘 우리나라의 불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불교적으로 살아가게 해 주기 위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불교학은 수행체제를 정립하는 체계불교학(體系佛學)과 실천불교학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문학적인 연구만이 불교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불교학의 혼란으로 인해 방황하는 수많은 불자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불교신행의 현장에서 무엇이 가르쳐져야 할 것인가? 불교신행의 현장에서는 타베트의 <보리도차제본>에서 가르치듯이, 불교에 대한 '지식교육'이 아니라, 수행자의 심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실성교육'이

심성체득 위한 교육 이뤄져야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불자를 만드는 교육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명상'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다음 심성의 체득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승속을 떠나 우리 모두는 부처님을 닮기 위해 수행한다. 우리가 부처님을 닮고자 한다면, 가부좌 틀고 앉아 깨달음을 추구하는 좌선 수행 이전에 '복박조자 고공으로 자각하게 하는 수행(淨觀)'과 '모든 생명체를 자비심으로 대하는 수행(慈悲觀)'부터 뒤야 한다. 그 다음에 번뇌를 끊는 좌선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추구해야 진정한 부처님의 모든 인격을 닮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수행이 완성된 이후 마지막에 제시되는 지관(止觀) 수행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좌선 수행'이다.

수행해야 걸들지 않아



박태원 교수

울산대 철학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집문자의 공부 내력을 먼저 살펴보니, 그는 불교 이론에 익숙하다. 공이여 마음의 도리, 사사무애 일념삼천 등에 대한 사변적 이해에 정통해 있다. 그러나 답답하다. 지적 토대도 견실하고 실천윤리적 체득도 수준급이건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국면에 눈뜨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넘친다. 정작 불교 언어가 열려주고자 하는 수행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한 국면에 눈뜨지 못하고 있다는 감감중이 긴장하게 하고 있다. 선사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소회되지 않는 언어, 사변의 틀에서 해방시키는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

서구적 배움의 길 방식 '비판'

"틀 알 잣나무니라."

불교 언어는 수행의 언어요. 걸어나간 만큼 이해되고 감당되는 언어이다. 이성, 감성, 윤리의 모든 층을 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독특한 길이다. 서구적 배움의 길을 걷는 방식으로는 항상 걸들게 마련이다. 불교학과 수행 혹은 신행의 문제가 근자에 부각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현대 불교학 이면의 서구적 배움의 길에 대한 열등감과 그에 따른 예측적 추후증이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의 지적 전통에 따라 구성된 근대 이후 한국 불교학, 기본적으로 서구 학(學)의 길을 추종한 일본 불교학과 그것이 한국 불교학 발달에 미친 영향 등을 비로소 비판적으로 비추어 보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신앙·수행적 연구 절실



서재영

동국대 강사

현재 한국불교학의 일차적인 문제점은 불교학과 신행과의 괴리, 이론과 실천의 불일치라고 생각한다. 불교학은 불교라는 살아있는 종교를 연구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방향은 대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학문적 연구 성과들이 일선 포교현장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불교학의 문제가 단순히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불교학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방법론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원인은 불교 신행이 애초부터 외부에 의한 학문적 연구에 의해 확립된 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종단 차원에서 방향제시·성과 수용하길

불자들은 역사적 과정에서 왜곡된 불교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즉, 부처님의 정법과 만나야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곧바로 만나야 한다. 이제 정법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불교의 신앙적, 수행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불자들의 요구 수준이 전통과 관습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질 높은 신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불교학이 바로 서야 신행이 방향이 올바르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적 차원에서 스님들과 학자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기구와 설립을 통해 불교학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강단 학문에 머물지 않고 불교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학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다.

삼매체험 선 수련 법회

5일동안 수행으로

- 1) 불교, 선 수행의 기초를 확립한다.
2)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영명적인 미혹한 삶에서 탈피하여 뜻하는 일을 하고 활동하며 살 수 있다.
3) 불교의 목표인 깨달음과 해탈의 삶으로 나아간다.
4) 기쁨과 타락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5) 잘못된 불교관을 바탕으로 하여 평생동안 심혈을 기울여 공들여 쌓아온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6) 선수행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활동과 일을 선택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
7) 수련후 삶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1. 대상및인원 20~60세 남·녀 일반인 70명

Table with columns for number of participants, dates, and fees for 1st, 2nd, and 3rd sessions.

2. 수련일정 (4박5일)

3. 접수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편 이용자는 속히 신청하여 항공편을 예약하여야 합니다. (항공편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접수 통지합니다.)

※항공사 예약전화 :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4. 신청 및 서류 아래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세요

- 1. 성명(한글,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지역, 직장) 4. 전화(지역, 직장, 휴대전화) 5. 종교
6. 직업-학교(과)반 7. 참가동기 8. 수련회 참가경험 유·무(유경험자는 순서법, 언제 어디서 기간) 9. 원하는 차수

5. 문의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전화를 해주세요.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6. 접수처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조계종 원명선원
☎ 064-755-3322 팩스 064-755-0880 (팩스 신청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www.wmsonwon.net

즉심즉각 본분도량 한라산 원명선원

2002년 단기출가수련학교 수련생 모집 안내

올해로 15회째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4박 5일간의 전국불교청소년 수련대회를 해온 불교사회복지 가치마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원을 개원하여 2002년 단기출가수련학교를 개설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다 음

- 1. 기 간 : 7월 28일(日) ~ 7월 31일(水) 3박 4일
2. 어디서 : 경기도 안성 가치 마을 청소년 수련원
3. 대 상 : 초·중·고생 4. 참가비 : 60,000원 5. 정 원 : 100명

◆ 프로그램 :

- ☐ 참선수련, 특강, 인문예술교육으로 인성고취
☐ 등산, 극기훈련, 전통생활체험, 모닥불 이야기 등 인내심과 협동심 고취
☐ 자연과의 대화로 심성고취
☐ 청소년상담(정남꾸러기, 주위가 산만하거나 공부에 흥미가 없고, 과잉스트레스, pc게임 중독, 공부에만 몰두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또는 교우관계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민하는 자녀를 상담 지도해 드립니다.)

◆ 준비물 : 쌀 1되, 세면도구, 운동화, 슬리퍼, 필기구, 양말 4켢레, 손전등, 개인구급약, 갈아입을 옷 (속옷포함 상·하) (모든 물건에 이름을 꼭 써주세요)

◆ 마감 : 2002년 7월 10일까지(선착순 조기 마감)

◆ 접수처 : 서울 지장사 ☎(02)856-1558 청소년수련원 ☎(031)673-5899

http://www.ggachimaul.or.kr / 단기출가수련학교 / 접수하기 e-mail : webmaster@ggachimaul.or.kr

◆ 송금처 : 국민은행 812-01-0134-991 예금주 : 가치마을

대지 700평 건평 100평 법양 요사채 등을 구비한 청소년 수련원이 경기도 안성에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사
불교사회복지 가치마을 청소년 수련원